예정된 은혜의 연착

(민33:1~56)

1.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라고 계속 되는데 41개의 지명이 나오고 39번을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원주민에게 하려고 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을 중심으로 <예정된 은혜의 연착(延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정된 은혜의 연착(延着)'
추석연휴에 역대 최대인원이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대만국제공항에 300여명의 한국인들이 주저앉아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세기 편으로 대만여행을 갔는데 태풍 두쥐 안으로 비행기가 연착되었던 것입니다. 이 300명을 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비행기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 연착에 대한 안내조차 없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은 뜬눈으로 18시간을 날짜로는 이틀간이나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항공사나 관광사 어느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또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 교통수단의 만성 연착입니다. 그런데 정말 연착의 최고는 북한의 열차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 함경남도 원산에서 압록 강변에 있는 양강도의 해산이라는 도시까지 가는데 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움직이는데 8일이 걸릴 수 있습니까? 이 북한 기차는 가다가 중간에 서면 방송도 하나 없이 몇날

며칠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기차의 지붕까지도 사람들이 까마귀 떼처럼 올라탔습니다. 용변이라도 보려고 자리를 뜨면 좌석을 빼앗겨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깡통이나 비닐 등을 들고 용변을 본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참다 참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치명적이다 못해서 살인적인 연착이죠. 그러나 이런 북한의 연착조차도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연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선민들에게 주시려는 예정된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연착되는 것입니다. 태풍 두쥐안으로 대만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는 것처럼 은혜가 연착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에 주시려고 계획되었던 은총과 은혜가 포기되고 취소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매로 바뀌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터전도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잘 가꾸도록 허허벌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낙원인 에덴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타락 뒤에는 선민에게 약속된 복지는 은혜의 땅으로 천수답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선민에게 약속된 복지의 삶이란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가 연착하지 않고 기차 시간처럼 확정되고 예정되어진 시간표대로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겠다고 스펙을 쌓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최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숨가쁘게 먹고 살겠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계획된 은혜만 다 연착 없이 취소 없이 임하기만 한다면,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나 일도 은혜로서의 직장이 되고 은혜로서 먹고 사는 것이 되고, 똑같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도 이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스펙을 쌓는 것과 무한경쟁시대의 중압감에 스펙을 쌓는 것과는 간단히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칩시다.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연착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연착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 쪽에 있어서 은혜가 연착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은혜의 연착'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년 광야생활의 노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머무는 1~2개월 동안에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설교가 다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40년 동안 가나안 진입 직전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여정을 기록하게 하셔서 41개 지명이 나열되게 되는데 41개만 있었겠습니까? 생략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진을 치고'라는 단어가 3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숙영지를 지리 할 정도로 반복하여 나열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직전까지의 여정을 왜 다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점은 출애굽이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진을 쳤던 곳은 모압 평지로 이 두 지점은 거리적으로 보통 여행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모든 장소에서 진을 쳤다고 하면서 숙영지를 다 나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노약자가 있고 가축 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2주가 넘을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광야에서 관광할 것도 없고 목적지로 가는 것만을 일로 삼는다면 아무리 길어도 2주일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1군데를 거치면서 39번 진을 치는데 40년은 2,080주간이고, 14일이면 될 것을 14,600일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연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의 교통수단의 연착이 만성적이라 하고 이북의 열차가 살인적으로 연착한다고 하지만 40년을 연착할 수 있겠습니까? 라암셋을 떠나 시내산에 온 뒤에 1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 갔을 때에 정탐사건 때문에 되돌아와서 38년 반을 헤매게 됩니다. 많이 깎아줘서 38년 반을 연착했다고 쳐도 이런 연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려는 계획과 예정된 복지를 허락받는 은혜가 제때에 오기만 했으면 광야의 고난으로 가득찬 삶의 과정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삶에서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차서 걱정과 우울함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승진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가 연착되고 있기 때문에 없어야 될 광야생활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나도 똑같이 이게 문제라서 짜증이 나고, 돈이 벌리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원수가 해를 끼치고 내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다 착각인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죽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천국이 되고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연착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도 복지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초

인적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인격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은혜가 연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는 순간에도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연착되지 않고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엄청난 가시를 안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임하게 될 은혜가 연착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고후12: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후12: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십니다. '내 은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시려는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은혜를 주었고 앞으로 주려고 계획하는 은혜들이 계획된 대로 도착하려면 몸에 가시가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불치병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들이 예정된 시간에 연착하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 불치병을 안고 있는 상태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착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일주일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오게 된 과정입니다. 41곳의 숙영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진을 치고'라는 말을 39번 반복합니다. '진을 치고'는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으로 이 말이 연착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도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합니다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정착하려는 사람은 업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 그 누구도 광야에서 진을 친 그곳에 마음을 정착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원죄로부터 나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 땅의 안정 된 상태를 구하고 정착하려는 이 성향을 원천 봉쇄하신 것입니다. 땅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이 성향을 원천 봉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선민들의 마음이 하늘에 정착해서 안정과 평강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안정 된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 하늘에서 예정된 은혜는 연착될 수밖에 없거나 그 시간이 지나면 취소될 수밖에 없고 포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붙으려는 내 마음과 하늘에서 예정된 은혜는 상극인 것입니다.
음식 중에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설탕을 같이 먹으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하고, 콜라와 라면을 같이 먹으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한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으면 보약의 기운이 상쇄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성향을 띤다면 하늘에서 예정된 은혜는 반드시 연착합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완전히 하늘에서 예정된 은혜로만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들은 이 땅에서 안정 된 삶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띠고 그래서 자꾸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돌게 하시며 원천 봉쇄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강,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안정 된 곳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야 말이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39번을 진을 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매년 이사를 한다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을에서 매년 이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곳만 바뀌는데, 아예 이것은 삶의 환경을 바꿔 가면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적응이 불가능하고 마음 붙임이 불가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5~56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원주민들은 거개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마음 붙이고 안정 된 삶의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꾸 그들을 보면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므로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만 다른 길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민의 마음으로 하여금 땅에 안정 된 환경을 구축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이런 저런 안정 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설득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다 죽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정된 은혜의 연착이 원천 봉쇄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주님도 이 땅에 내려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정 된 은혜가 연착 없이 주어지는 복지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처럼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안정을 찾지도 못하고, 광야에 마음을 붙일 수도 없게 하시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광야생활을 낭만적이고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이라며 아름답게 포장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빨리 벗어나야 될 곳입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십

자가 생활화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다 죽여야 할 원주민들이 중보기도의 대상들로 바뀝니다. 원주민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내게 아직도 마음을 땅에 붙이려는 성향이 잔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찾으면 그 때부터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 된 사람들이라면 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땅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하고 이웃까지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늘에 정착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으면 나를 끌어가는 원주민들은 내가 끌어가야 될 대상들이 됩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서 같이 복지를 누려야 될 사람들로 바뀌는 것인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가 땅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늘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예정 된 은혜가 연착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고, 내 삶이 지옥의 예고편쯤으로 바뀌느냐 천국의 예고편으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내 이웃들도 무찔러야 할 원수가 되느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복의 길이 열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정착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면서 이 땅에서는 아예 정착하지 말라고(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음을 알아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내 삶은 어디를 가든 예정 된 은혜만이 임하면서 삶이 진행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그들도 예정된 선민이라면 그들에게도 예정된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도 복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복지와 그들의 복지가 만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복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셔서 세상일로 생긴 안타까움이 하나님으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정 된 은혜가 임하면서 삶이 진행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은혜 안에서 하게 될 것이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환경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병이 나도 은혜이고 사업이 망하더라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라도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은혜임을 알고 죽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복지라는 것입니다. 톱에 켜서 죽어도 은혜로 알라는 말이 좀 심했나요?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인데 어쩌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능력으로 무슨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까지 내 스스로가 부담을 안고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어차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기에 예정된 은혜가 연착되지 않도록 십자가 생활화를 오늘은 어제보다 더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